

성인남녀 절반 떠밀리듯 외곽으로

치솟는 전·월세에 서울밖으로 이사... 62.2% 이사로 인해 생활 불편

최근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인구가 30여년 만에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성인남녀 절반은 전·월세금이 올라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성인남녀 1,388명을 대상으로 '전·월세금이 올라 이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7%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 중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했다는 응답이 73.3%(복수응답)로 월세금이 올라서 이사했다는 답변(45.6%)보다 많았다.

전세금 때문에 이사해본 사람들(516명)의 평균 이사 횟수는 2.5번으로 집계됐다.

이사한 방법은 '집 크기를 유지하고 저렴한 지역을 선택'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 크기도 줄이고 저렴한 지역 선택'(29.8%), '집 크기를 줄이고 마음에 드는 지역 선택'(18.6%)이 있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 살던 지역 유지'(56.6% 복수응답), '도심 내의 외곽지역'(28.2%),

'큰 도시에 접한 위성도시'(13.8%),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방'(8.3%)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 중 62.2%는 이사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47% 복수응답)이 단연 1위였다. 실제로 이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편도 기준)은 62분이었으며, 기존과 비교해 평균 41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교통이 불편해짐'(39.3%), '주요 활동 구역이 멀어짐'(34.6%), '집을 줄여서 생활 공간이 좁아짐'(34.3%)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월세가 올라서 이사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월세금이 올라 이사해봤다는 응답자들(321명)은 평균 2.2번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 방법은 '집 크기도 줄이고 저렴한 지역 선택'(40.5%), '집 크기를 유지하고 저렴한 지역 선택'(40.5%), '집 크기를 줄이고 마음에 드는 지역 선택'(19%) 순으로 나타났다.

옮긴 지역은 원래 살던 지역 유지(55.8% 복수응답), 도심내의 외곽지역(30.2%), '큰 도시에 접한 위성도

시'(10.3%),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방'(10%)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들의 70.1% 역시 월세금 상승으로 인한 이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52.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평균 59분이 소요되며, 기존 소요시간보다 평균 39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집을 줄여서 생활 공간이 좁아짐'(41.3%), '교통이 불편해짐'(37.3%), '주요 활동 구역이 멀어짐'(37.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은 전·월세금 및 집값상승이 미치는 영향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삶의 질이 저하됨'(67.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집값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짐'(58.6%), '필요이상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됨'(31.8%), '높은 연봉이 직장 선택의 기준이 됨'(31.4%),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하게 됨'(25.1%), '연봉 회사 위치 등으로 이직하게 됨'(21.6%) 등을 들었다.

신광영기자



홈플러스 여름슈즈-여행가방 신제품 출시 15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여름슈즈 및 미코코 런던 여행가방의 신제품 출시를 알리고 있다.

“카보타지 시행계획 철회하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건의서 정부부처에 전달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 이하 전북상공의)는 15일 정부의 카보타지 시행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전북상공의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자동차 취급 형태와 관련 사업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몰락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파산에 의해 정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의는 또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금번 정책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군산경제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성과 한국GM사의 경영악화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국가적으로 특단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자동차 환경화물 유지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에 이르는 야적장을 조성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 계획을 세우는 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어려운 처해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하고, 카보타지 시행으로 인한 일자리피해, 관련업체 도산 등 엄청난 불행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카보타지(Cabotage)’ 정책을 적용키로 하면서 전남 광양항에만 이를 3년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광영기자

전북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단지 상인들 생계난 호소 나서

전북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단지 상인들 생계난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시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봉이 영업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상가 공지에 차단막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상가 관계자는 “민성초등학교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혁신도시 호반3차 아파트의 경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세운 차단봉 때문에 단지주민들까지 이용하기 불편해지면서 상인들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곳 상가는 지난 2013년 분양 당시 1층의 경우 33㎡당 2천200만원으로 낙찰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처럼 상가 주변 환경이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현재 27개 상가 가운데 10개 점포가 공실로 남아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슈퍼와 세타스 등의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이윤은커녕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잡안 주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광영기자

11번가, 생활플러스 렌탈샵 오픈

11번가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렌탈 제품을 한 곳에 모은 ‘생활플러스 렌탈샵’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플러스 렌탈샵은 11번가를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교원월스를 비롯해 동양메직, 바디프랜드, 정호나이스, 쿠팡이 쿠쿠 등 국내 메이저 렌탈업체들이 모두 입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렌탈 종합몰이다.

각 렌탈 상품별 인기키워드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모바일앱을 통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각 업체 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특별한 구매혜택 및 사은품 등 알찬 쇼핑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렌탈종합몰들에 비해 11번가의 생활플러스 렌탈샵은 본사가 직접 입점하거나 공식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입점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렌탈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각 사가 제공하는 기본 할인혜택에 더해 11번가가 추가로 2개월 분의 렌탈료를 11번가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더욱 경제적인 렌탈 이용이 가능하다.

박성민 SK플래닛 플랫폼 제휴팀장은 “11번가는 14개 렌탈브랜드사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렌탈 쇼핑몰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렌탈 제품을 고객들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1번가만의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청년실업률 5월 기준 역대 최고

15~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청년 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년 동월(9.3%)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2월(12.5%), 3월(11.8%), 4월(10.9%)을 기록한 이후 5월(9.7%) 한 자릿수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30대(-5000명), 40대(-3만7000명), 50대(-1만2000명)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청년층에서는 실업자 수가 2만3000

9.7%로 전년동월대비 0.4%p ↑

명(6.8%) 증가했다. 특히 주 취업 연령대인 25~29세 실업자는 24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19000명(8.7%) 증가했다. 2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9.0%)과 비교해 0.3%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00명(7.0%)이나 늘었다.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158만 5000명으로 14만명(9.7%)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42만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한편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두 달 연속 2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5월

취업자는 26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1000명(1.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16만 2000명), 20대(9만명), 50대(8만3000명)에서 각각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 중인 40대와 30대는 각각 3만 7000명, 2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만9000명), 숙박및음식점업(8만8000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7만5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2000명) 등에서 늘었다. 농림어업(-9만9000명), 도매및소매업(-8만3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3만3000명) 등은 감소했다.

중상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27만명 감소했다. /인진수 기자

대학연구기관-중기 기술개발 지원

공동 R&D 희망중기에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 보조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택)은 '2016년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례(7월, 9월)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학협력기술개발 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또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1일~7월13일, 또는 9월 1일~9월 12일 온라인 (<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생산기술과(063-210-6444)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